

## 지역분쟁의 원인 연구

김 성 우\*

### 요 약

전쟁의 본질은 전쟁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전쟁의 목적을 비롯하여 본질, 속성, 성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전쟁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전쟁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쟁시 외세개입 방법과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방법은 미국과 영국 등의 사회학자들의 주장과 연구 등 문헌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다양한 전쟁의 목적으로 인해 전쟁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기가 단순하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분쟁의 원인에 대하여 주로 분석하였다. 각 지역별 소규모 분쟁과 새로운 형태의 전쟁의 원인을 규정지으려는 대부분의 논문에서 보고되는 지역적·구조적 설명들이 전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적 요소와 외부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뒤얽혀있고 냉전이 내전을 격화시켜왔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연구 자료는 최근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분석 및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 도움을 줄 것이다.

## A Study on Cause of Regional Conflict

Sung-Woo Kim \*

### ABSTRACT

The nature of war includes the concept of war and the purpose of the war, as well as its nature, attributes and personality. The war that started with the history of mankind has started to achieve various purposes. There were also wars that took place to get territory or slaves and resources. There was a war to spread ideology and religion. The cause of war has diversified due to the purpose of various war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auses of regional conflicts that have occurred on the earth since World War II. The regional and structural explanations reported in most papers attempting to define the causes of small regional conflicts and new forms of war in each region are not entirely credible. It is clear that the Cold War has intensified civil war. Most of the causes of these wars should be considered to be within the country

**Key words :** nature of war, ideology and religion, regional and structural explanations, cause of war.

## 1. 서론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쟁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전쟁의 목적과 본질, 속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전쟁의 원인은 전쟁의 목적, 전쟁의 본질 등과 관계가 있다. 국내에서도 전쟁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전쟁론’에서는 전쟁의 원인을 전쟁의 목적에서 찾고자 하였다[1]. 전쟁의 본질은 전쟁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전쟁의 목적을 비롯하여 본질, 속성, 성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전쟁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분쟁의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쟁시 외세개입 방법과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방법은 미국과 영국 등의 사회학자들의 주장과 연구 등 문헌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 2. 전쟁에서의 외세 개입방식

상대적으로 강대국들은 자국의 안전보장 논리와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의 획득과 해외 주재민들을 지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역분쟁에 개입해 왔다. 다른 약소국가들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주변 국가에 군사적인 지원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보면, 약소국가의 취약성은 강력한 무력집단을 투입하여 인접 국가를 간섭하려고 하는 주변국에게 온갖 종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프리카의 예를 들어보자. 나이지리아군은 군사 반란 진압을 돕기 위해 1964년 탄자니아 국경을 넘었다. 기니아는 라이베리아와 시에라이온에 몇 차례 군대를 파견했다. 리비아는 우간다의 ‘이디 아민’이 ‘차드’지역 전면 침략을 감행하는데 원조를 했다[2].

‘7가지 무장 분리운동’을 연구했던 ‘헤라클라이드’도 위의 개입이 권력·전략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감정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통해 만들어진 현 정부나 분리주의자

단체를 지원하는 행위, 폭력과 심각한 인권 유린을 봉쇄하기 위해 개입한 일련의 조치가 이제는 통상적인 것이 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국제기구에서의 외교적인 발언을 통해 국제기구의 허락 하에 도덕적 지원의 형태로 무력개입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아마도 인도주의적 원조와 관련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인접국에 대해 개입할 시에는 병참술·은신처·군사 훈련·수송·무기와 물자·군사 고문 등의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3].

군사력 개입의 빈도는 이들 전쟁의 원인이 지역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또는 군사력에 기인하는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국가 내부의 요인 때문인지 의문인지 정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형태의 전쟁의 원인을 살펴보는 데 있어, 그 분석의 범위를 전적으로 국가의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국가 건설의 과정에만 일어나는 현상인지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전쟁을 각 지역에서 소규모 무력집단들이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 3. 지역분쟁의 원인

### 3.1 소 지역주의 분쟁

전쟁의 기원은 국내 문제로부터 발생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국력강화딜레마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할 수 있다. 약소국가에 있어 근원적인 문제는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도전으로 인한 국가의 붕괴 가능성이다. 외부적 안보 딜레마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창설된 전통적인 동맹 체계 외에도 몇몇 지역 기구를 나열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과 ‘걸프 협력 회의’는 사실상 국가 내부적인 위협으로부터 회원국 정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전쟁과 평화에 관한 연구는 인류학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 거시적 분석으로 구분하여 인간본성론, 사회현상으로서의 공격, 집단갈등론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설명한다[4].

대부분의 정부는 국가 내부의 적으로부터 정부와 정권을 보호하는데 그 자금을 사용하려했던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인도네시아 군은 자카르타 근

처에 위치한 정치적 요충지에 해당하는 ‘자바’섬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은 반란이 자주 일어났던 지역이다. 102개 대대 중 67개 대대가 지방 수비 임무를 위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군대가 다수의 지방 도시 및 소도시에 분산되어 정권에 대한 정치적 도전을 하는 조직의 생성과 발전을 억제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

국내 주둔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수품보다 인력과 작전 경비 비용이 높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것을 알 수가 있다. 병력 집약형 조직과 배치하는 외부의 적을 저지 및 방어하는 군대에서보다 국내 안보 정치를 담당하는 군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새로운 형태의 전쟁의 원인을 지역적·구조적 요소에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국가 내부적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제3세계의 안보 문제와 관련지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제3세계의 안보 문제는 여러 가지 맛을 내는 계단식의 케이크에 비유될 수 있다. 이 케이크는 세 가지 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보의 국내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이다. 이들 세 가지 차원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층은 전체 케이크의 맛을 좌우하는 국내적 차원의 층이다. 제3세계 국가의 내부적 취약성은 상당 부분 제3세계 각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소규모 지역 분쟁에서 기인된다[6].

### 3.2 국제적·국내적 요인

한편 다른 분석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의 주요 원인을 밝히는데 있어서 국가 내부적, 지역적, 국제적 요소는 본질적으로 따로 생각할 수 없거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한다. 따라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부적 요소와 외부적 요소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전쟁의 원인을 인간의 공격성, 국가의 정권형태, 국제정치체제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현대정치학’은 생물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정치학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7]. 하지만 엄밀히 말해 어떻게 이와 같은 과정이 진행되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요인들이 전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카렌 라즐러[8]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근본적으로 국가 내부적 원인과 더불어 약간의 지역적, 국제적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은 현상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1958년과 1975년의 레바논 사태를 분석하면서 외부의 힘이 내전 상황을 조장했다고 주장하면서, 두 차례의 내전 모두 지역 및 국제정치 상황이 불씨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국제 체제가 국가내의 혁명적 상황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전쟁의 결과에도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지만, 레바논이 전형적인 약소국가나 실패한 국가를 상징하는지는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도 있다[9].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답은 있을 수 없지만 국제적인 요인이 분쟁에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형태의 전쟁 원인은 국내 정세가 지역적·구조적 요인보다 지배적이라는 이론에 대부분 동의한다. 그것은 대부분의 외세 개입이 국내 유혈 사태 이후에야 이루어진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스 ‘키프로스’ 사태 개입은 이 주장을 일반화시키는데 있어 유일한 예외가 될 것이다. 외세의 개입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는 무장 투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 규제는 외국 간섭을 줄이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 3.3 결정론적 관점

식민주의, 공동체 분열 및 인공적인 다민족 사회 등은 숙명론적, 결정론적 관점에서 보면 약소국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민족 결정론적인 분석 보다는 정치 결정론적인 분석이 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우리는 제3세계에서 무력 충돌의 원인이 되었던 지역적 또는 국제적 요인들을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① 무기 양도, ② 세계적 민족 네트워크, ③ 접촉에 의한 악영향, ④ 강대국간 경쟁이 바로 그것이다. 무기 양도와 판매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의 유발을 도울 수 있는 동시에 억제할 수도 있었다. 미국만 해도 연간 제3세계 국가를 상대로 무기 판매고가 300억 달러에 달하며, 1989-1992년 기간 동안 총 554억 달러 어치를 판매함으로써 전쟁 무기의 세계 최대 공급자였던 소련을 능가하였다[10].

1960년대 이래 대부분의 강대국 개입 활동이 분리

주의나 반동세력의 활동을 돕기보다는 현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 무기들이 실질적인 전쟁 억제력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쉽게 뒤집힐 수 있다. 1980년대 초기의 ‘엘살바도르’사태에서 보듯이 반대파와 반정부주의자들에 대한 구조적 탄압을 자행하는 독재 정권에 인도된 무기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역적인 합법성이 결여되고 압제와 테러를 남용하여 사회 통합보다 사회 분열을 촉진하는 자들이 집권하는 것을 도운 결과가 되었다. 현재 소형 무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이들의 불법적 또는 합법적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이들 무기류의 주요 수출국들은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이 소형 무기류의 밀거래량은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11]. 취약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운명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94년 ‘르완다’의 ‘후투족’과 ‘투치족’간 분쟁에 사용된 무기 및 물자 대부분은 우간다, 프랑스, 이집트 및 남아프리카로부터 도입된 것이었다. ‘르완다 애국 전선’과 ‘후투족’정부 및 민병대는 부족분을 다른 8개국과 다양한 개별적 통로를 통해 충당하였다. 즉, 특정 국가의 무기 판매가 특정 전쟁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 이제는 다양한 무기 유통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단체는 별 어려움 없이 무기류를 구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의 발발 원인이 무기 판매 때문이 아니고 정치적 상황이 무기를 구입하도록 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아일랜드인, 캐나다의 시크교도, 중앙아메리카의 바스크인,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유대인들이 정보 교환, 자금 조달, 도덕적 지원, 때로는 무기와 마약의 불법 지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관여한다. 이런 네트워크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의 공동사회 사이의 투쟁을 강화 또는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12]. 그래서 역사와 국가의 위치, 종족의 다양성 등에 의하여 운명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결정론적인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 3.4 강대국의 경쟁

많은 전문가들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의 주요원인을 강대국간 경쟁으로 보고 있다. 물론, 구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냉전 시대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다. 1980-1981년 ‘차드’의 ‘고우쿠니’ 정권을 공격했던 ‘히세네 하브르’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앙골라내의 ‘MPLA 정부’와 ‘요나 사빔바스의 앙골라 완전민족동맹’[13]간 내전을 유발시켰던 조약파기가 여기에 속한다. 냉전과 테러에 있어 열강에 속하는 경쟁 당사자국의 안보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냉전기의 경쟁은 위험 부담이 적은 타 지역에서 벌어지곤 했다. 따라서 이 경쟁이 제3세계의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전쟁을 촉발 또는 격화시켰다. 그러나 촉발과 격화 역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의 주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제3세계에 대한 강대국 개입의 결과는 사실상 결론 내리기 어렵다. 다수의 관찰자들은 이러한 강대국의 개입이 전쟁을 지속 및 격화시키고 협상을 통한 종결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대국 개입이 무장 투쟁을 초기에 진화시키거나 그것의 진전을 막아주기도 한다[14].

여기서 우리는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의 사례 간에 상호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냉전 종결 이후의 전쟁 기록을 보면 수차례의 지역과 국가 내부 분쟁이 강대국의 영향을 받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강대국 개입이 최소한 분쟁의 개전과 종전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반면, 이 전쟁의 이면에는 오래 전부터 계속된 분쟁이나 새로운 형태의 전쟁의 발발을 목격할 수 있다. 키프러스와 카슈미르 사이의 분쟁과 같이 오랫동안 끓어 있던 상처는 냉전 기간 동안에도 변화가 없었다. 전쟁의 기록들을 보면, 냉전 경쟁이 약소국내의 무력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분쟁을 지속시키고 격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3.5 구조적 요인

새로운 형태의 전쟁의 결과를 설명하려면 구조적 요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 국가가 외교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 영토 주권주의, UN 헌장 및 여러 국제 조직 등은 약소국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현대 정부에서 인정

하고 있는 민족 자결주의는 전적으로 반식민지 투쟁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었다. 어느 국가의 사회나 그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조직들은 민족 자결주의 의미가 대중, 파벌, 민족, 종교 및 민족 단체들의 권리나 국가로부터 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1960년대 이후의 개입의 형태를 살펴보면, 국제사회의 지원은 반군 세력보다 현 정부 쪽에 더 집중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1967년 4개국 정부의 인정을 받으며 탄생한 '비아프라'의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회교 국가들과 필리핀의 모로 반란군, 또는 인도와 스리랑카의 '타밀' 소수민족과 같이 지원국과 감정적 결속력이 매우 강했던 경우에서조차도 지원국의 정부는 반군에 대한 도덕적 지지 이상의 개입을 꺼려했다. 모로 반군과 친분이 있던 회교 국가들이 모로 반군과 협상을 하도록 필리핀 정부에 압력을 넣기는 했다. 그러나, 어떤 회교 국가도 '민다나 방다 모로 공화국'[15], '바실리아', '수루', '팔라와'를 승인해 달라는 모로측의 요구에 호응하지는 않았다[16].

인도 정부는 평화 조약에 서명하도록 '타밀 이알람 해방전선'[17]을 압박했다. 이는 분리 독립 운동의 싹을 잘라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 광범위한 지원을 통해 내전을 촉발 또는 유지시키는 것은 너무 큰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였다. 우선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 예로 1987년 국가의 영토적 통합을 위해 인도가 스리랑카에 개입했을 때, 인도가 지원한 것은 인도 내의 편잡과 카슈미르 지역에서 일고 있던 분리 스리랑카의 반군세력 대신 스리랑카 정부를 운동 세력에게도 인도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보이면서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다.

#### 4. 결 론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확립하는 것은 국가 내부에서 일고 있는 반란 세력과 분리주의자들에게 은연중에 명백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내전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지역분쟁은 실제로 단지 몇몇의 '무장 분리 투쟁'만이 성공했을 뿐이다. 대부분의 경우 협상에 의한 '평화적인 분리 움직임'이 더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볼 때 국제 체제는 잠재적 무장 투쟁을 억누르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유럽의 약

소국가들은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주변국가에 의해 합병되거나 분할됨으로써 결국 소멸되었다. 위 연구내용을 보면, 약소국이 강대국가로 성장하려는 시도는 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장 저항과 분리 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을 조성시키고 이러한 현상이 지역분쟁을 야기시켰다.

각 지역별 소규모 분쟁과 새로운 형태의 전쟁의 원인을 규정지으려는 대부분의 논문에서 보고되는 지역적·구조적 설명이 전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 약소국들은 국내적 요소와 외부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뒤얽혀있고 냉전이 내전을 지속, 격화시켜왔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들 지역분쟁의 원인이 대부분 국가 내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반도의 안보상황도 위 연구내용을 기초로 지속적인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온창일, "전쟁론", (서울 : 집문당, 2008), p.185.
- [2] Foltz, William, 1990, "Dynamics of Revolutionary Change: External Cause", in Barry Schuts and Robert Slater, eds., Revolution and Political Change in the Third World, Boulder, CO: Lynne Rienner, 1990. p.359.
- [3] Gurr, Ted, 1993, Minorities at Risk: a Global View of Ethnopolitical Conflict,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p.153.
- [4] 홍양표, "전쟁원인과 평화문제",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3), pp.21-22.
- [5] Peace Research Center,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93, Pacific Research, 6, 4. pp.14-15.
- [6] Ayoob, Mohammad, 1991, "The Security Problematic of the Third World", World Politics 43, January, p.278.
- [7] 김순규,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박영사, 1997), p.49
- [8] Karen Rasler :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정치학 교수
- [9] Buzan, Barry, 1991,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London: Harvest Wheatsheaf. p.28-29.
- [10] Grimmet, Richard F, 1993, Conventional Arms Transfer to the Third World, 1985-1992, Washington,

-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ibrary of Congress, July 19. p.101.
- [11] Goose, Stephen D, and Frank Smith, 1994, "Arming Genocide in Rwanda.", Foreign Affairs, September /October, pp.86-87.
- [12] Premdas Ralph, 1991, " The Internationalization of Ethnic Conflict: Some Theoretical Exploration", in K. de Silva and R. May, eds., Internationalization of Ethnic Conflict: Printer Publishers, pp.12-13.
- [13] Jonas Savimbis's UNITA : 우익 게릴라 조직
- [14] Toubal, Saadia, 1972, The Boundary Politics of Independent Afric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163-164.
- [15] Bangda Moro republic of Mindana
- [16] Gopinath, Aruna, 1991, "International Aspect of the Thai Muslim and Philippine Moro Issues: A Comparative Study", in . de Silva and R. May, eds., Internationalization of Ethnic Conflict, London: Print Publishers, pp.131-132.
- [17] Liberation of Tigers of Tamil Ealam

---

**[ 저자 소개 ]**

---



김 성 우 (Kim, Sung Woo)  
1983년 2월 학사  
2004년 2월 석사  
2011년 8월 박사  
동명대학교 군사학과 교수/학과장

email : tiger@tu.ac.kr